존 오웬 『성경의 신적 기원·권위·자증하는 빛·능력에 관하여』(1659, 굴드판 전집 16권 1862, 영문)

오웬 · 3장 두 종류의 논증 · 기적

존 오웬, 『성경의 신적 기원·권위·자증하는 빛·능력에 관하여』(1659) 3장. 굴드판 『존 오웬 전집』 16권(1862). 쪽: 본문 중간 쪽머리에 '317'로 보이는 표시가 있으나 정확한 쪽 범위는 확인 필요.

🧭 흐름 한눈에

오웬은 앞 장들에서 성경의 신적 기원과 권위를 밝혔다. 이제 성경이 스스로 하나님에게서 났음을 드러내는 '자증'의 증거로 넘어간다. 먼저 논증을 '증언에 의한 것'과 '추론에 의한 것' 두 종류로 나눈다. 성경을 고백하는 사람과 고백하지 않는 사람에게 각각 어떻게 쓸지 정한 뒤, 이 장의 진짜 목적은 남의 반론에 답하기보다 우리 양심이 확신할 바탕을 찾는 일이라고 밝힌다. 이어 이사야 8:20과 디모데후서 3:16을 근거로 든다. 성경이 자기를 받아 달라고 내세우는 근거는 교회도 전통도 기적도 아닌 '하나님의 영감' 하나뿐이다. 영감 받은 선지자를 받아들여야 했듯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도 받아들여야 한다. 여기에는 믿든지 미워하며 버리든지, 중간 길이 없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6장과 베드로후서 1장으로 결론짓는다. 죽은 자의 부활이나 하늘의 음성 같은 기적도 기록된 말씀보다 더 단단한 믿음의 바탕이 되지 못한다.

📜 절별 정리

📜 1. 두 종류의 논증

오웬은 성경의 신적 기원과 권위를 이미 밝혔다고 정리하고, 이제 성경에 따라붙는 '자증의 증거들'을 살피겠다고 한다. 자증이란 성경이 다른 보증인 없이 스스로 하나님에게서 났음을 드러낸다는 뜻이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근거에서 결론을 끌어내는 '인위적 논증'이다. 진리에 증거를 보태는 것은 무엇이든 이 둘 중 하나에 속하며, 오웬은 이 일에 둘 다 쓰겠다고 한다. 성경을 인정한다면서 근거를 따지는 사람에게는 성경 자신의 증언을 들이댄다. 성경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경 안에 심긴 증언을 '재료'로 삼아 추론한 논증을 쓴다.

1. 자증 = 성경이 스스로 신적 기원을 드러냄
2. 논증은 증언형과 추론형 두 가지뿐
3. 오웬은 이 일에 두 종류를 다 쓴다
4. 고백하는 자에겐 성경의 자기 증언을
5. 불신자에겐 성경 속 증언에서 끌어낸 추론을

> —
> 이 절에서 오웬은 성경 구절을 직접 인용하지 않는다

"무엇이든 확증하는 논증은 두 종류다. 증언에 의한 비인위적 논증과, 추론과 귀결에 의한 인위적 논증이다."

📜 2. 증언에 의한 논증 — 진리를 증언하는 성경

오웬은 두 경우 모두 성경의 증언이 받아들여져야 하며, 이성적으로 거절할 핑계가 없다고 말한다.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증인의 권위와 진실함 때문에 그렇다. 성경이 '자기 사건'에서 증언하는 셈이지만 그래도 그렇다. 고백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증언에 담긴 자증의 힘 때문에 그렇다. 그 힘은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종류의 추론으로 드러난다. 오웬은 사람 사이의 증언에 빗댄다. 정직하고 평판에 흠이 없는 사람이 증언하면, 그를 아는 사람들은 그 말에 기대어 받아들인다. 그를 모르는 사람도 그가 말하는 일 자체의 성격과 앞뒤 정황이 맞아떨어지는 것을 보고 결국 동의하게 된다. 성경의 증언도 이렇게 두 길로 사람을 설득한다.

3. 불신자: 증언에 담긴 자증의 힘 때문에
4. 비유: 정직한 증인의 증언
5. 모르는 사람도 사안 자체의 성격에 설득됨

> —
>
> 이 절에서 오웬은 성경 구절을 직접 인용하지 않는다

"그를 모르는 사람, 그의 권위에 움직이지 않는 사람도, 그가 말하는 일 자체의 성격 때문에 결국 그 증언에 동의하게 된다."

📜 3. 이 논증은 누구에게 유효한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증인의 신용을 이미 인정한 것이다. 그러니 성경이 자기 자신과 자기의 신적 기원에 대해 하는 증언을 받아들여야 마땅하고, 엄밀한 정의로 따져도 그렇게 요구할 수 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그걸 증명해 보라"고 요구하면, 성경에서 끌어오는 모든 증언 앞에 스스로를 세운 셈이다. 그 증언을 피하려면 자기가 고백한 원리부터 버려야 한다. 반면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금 바로 그 자격이 문제 되는 증인의 맨 증언만 들이미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이며 무엇을 하는지, 곧 그 본성과 작용에서 끌어낸 논증은 그들도 거절할 수 없다. 그런데 오웬은 이 두 부류를 상대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고 밝힌다. 그가 묻는 것은 우리가 기댈 단단한 바탕, 그리고 믿지 않는 자를 핑계할 수 없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답은 "성경 안에, 성경 자체로부터"이며, 같은 종류의 다른 증인은 필요하지도 않고 들일 수도 없다.

1. 고백자는 성경의 자기 증언을 거절 못 함
2. 거절하려면 고백부터 철회해야
3. 불신자에겐 맨 증언 강요 대신 본성·작용

—

이 절에서 오웬은 성경 구절을 직접 인용하지 않는다

"지금 내 논의는 남의 반론에 답하기보다 우리 자신의 양심을 만족시키려는 것이다. 다만 모든 사람의 반론을 견딜 원리 위에서 그래야 한다."

"그것은 성경 안에, 성경 자체로부터 있다. 그러므로 다른 증인이나 증언은 더 필요 없고, 같은 종류로는 들일 것도 없다."

📜 4. 신적 영감에 대하여 — 성경이 내세우는 단 하나의 근거

오웬은 첫 증언으로 이사야 8:20을 든다. 교회든 개인이든, 하나님의 뜻과 예배와 순종에 관한 모든 말은 '율법과 증거의 말씀', 곧 기록된 말씀으로 시험받아야 한다. 다른 모든 말을 시험하고 자기 말까지 시험하는 기준이라면, 그 기준은 스스로 자기를 위해 말해야 한다. 그러면 성경은 자기를 받아 달라고 무엇을 내세우는가? 전통도, 교회의 권위도, 기적도, 사람들의 동의도 아니다. 디모데후서 3:16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감'이다. 오웬은 이것을 선지자와 나란히 놓는다. 많은 선지자가 기적 없이 오직 영감 받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말했고, 그 말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불신이요 반역이었다. 게다가 당대 교회의 인정을 받은 선지자는 거의 없었다. 거짓 선지자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참된 말씀을 받고 거짓을 버리는 일을 영원한 생사가 걸린 의무로 두셨다. 오웬에 따르면 그 분별이 가능하도록 말씀 안에 '신적인 것'과 '확실한 표지'를 주셨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레미야 23:26-29가 그 증거다. 하나님의 말씀은 겨 옆의 알곡처럼 '그것이 무엇인지'로 구별되고, 불과 방망이처럼 빛과 열과 능력을 지녀 스스로를 드러낸다. 그러니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도 영감 받은 사람과 다르지 않다. 기록되었다고 권위가 약해지기는커녕, 전달자 개인의 약점이나 숨은 이해관계를 의식하는 평경에서 오히려 자유롭다.

2. 기준은 스스로 자기를 위해 말해야 한다
3. 성경이 내세우는 근거는 오직 영감
4. 선지자들은 기적 없이 영감만으로 섰다
5. 말씀은 알곡처럼 그 자체로 구별된다
6. 기록은 권위를 해치지 않고 편견을 없앤다

> **이사야 8:20**
> 교회든 개인이든 모든 말을 시험하는 기준이 '율법과 증거의 말씀'임을 보여 줌
>
>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 **디모데후서 3:16**
> 성경이 자기를 받아 달라고 내세우는 유일한 근거가 '하나님의 영감'임
>
>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 **아모스 7장**
>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영감을 주장하며 말한 예 (오웬은 장만 표기)
>
> 1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매 2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3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4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5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6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마태복음 23:29

후대는 선지자의 무덤을 꾸미지만 당대는 그들을 죽였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누가복음 11:47-48

같은 내용. 조상들이 선지자를 죽인 일에 후손이 동조함

47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48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사도행전 7:52

박해받지 않은 선지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스데반의 고발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의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마태복음 21:33-39

주인이 보낸 종들과 아들을 죽인 농부 비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거절함

33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34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35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36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37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38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베드로후서 2:1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도 있었다는 사실 인정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예레미야 23:21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는데 달려간 거짓 선지자들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달음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예레미야 23:28-29

참 말씀은 받고 거짓은 버려야 함. 겨와 알곡, 불과 방망이

28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29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예레미야 23:26-29

하나님이 분별할 표지를 주셨다는 증거. 말씀은 그 자체로 구별되고 스스로를 드러냄

26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의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27 그들이 서로 꿈 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28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29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예레미야 43:3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9:29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전달자 개인을 깎아내리는 편견의 예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사도행전 24:5

바울을 "염병 같은 자"로 고발함. 같은 편견의 예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다른 모든 것의 말을, 그리고 자기 말까지 시험해야 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를 위해 말해야 한다."

"참으로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경청되어야 했다."

📜 5. 영감의 주장을 거부한다는 것 — 그 뜻

성경이 영감을 내세우면 사람은 그 증언을 받아들이든지 거부하든지 둘 중 하나다. 받아들이면 거기에 믿음이 설 바른 바탕이 있다. 오웬은 이 바탕을 헬라어 '휘포스타시스'로 부른다. 거부한다면 증언을 사양하는 정도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그 주장 자체를 몹시 미워하며 버리는 것이 된다. 그런 거부에 무슨 근거가 있는지는 뒤에서 다루겠다고 한다. 오웬의 논리는 한 줄로 이어진다.

영감을 주장하는 자들에 대한 반론은 앞에서 다루었다고 말한다. 지금은 성경을 인정하면서 근거만 묻는 사람들을 상대하는데, 그들에게는 이 점으로 충분하다. 그들이 인정하는 바로 그 권위와 진실함으로, 성경은 자기를 받아들일 근거가 자기의 신적 영감 말고는 없다고 선언한다. 그래서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씀이다.

1. 영감 주장 앞에서 중간 길은 없다
2. 받으면 믿음의 바른 바탕이 된다
3. 버리면 신적 주장을 미워하는 것이 된다
4. 거부가 죄면 수용은 의무였다
5. 의무였다면 충분히 드러나 있었다

> **디모데후서 3:16**
> (4절에서 이어짐) 성경이 내세우는 영감이 이 양자택일을 낳음
>
>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 **디모데전서 1:15**
>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씀”이라는 표현. 오웬은 장절 없이 헬라어로만 인용
>
>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죄라면, 받아들이는 것은 의무였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의무였다면, 그렇다는 것이 충분히 드러나 있었던 것이다.”

📜 6. 기적에 대하여 — 말씀과 비교한 믿음을 낳는 힘

누가복음 16:31에서 지옥의 부자는 기적을 해결책으로 꼽는다. 죽은 자가 살아나 전하면 형제들이 회개하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곧 이 비유를 말씀하신 그리스도는, 모세와 선지자들, 곧 기록된 말씀을 들으라고 한다. 오웬은 말씀이 스스로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이 지시는 공정하지 않았으리라고 본다. 사람들은 분명한 기적이 일어나면 불신의 핑계가 다 사라지리라 생각한다. 그리스도는 말씀 안의 하나님 권위에 굴복하지 않는 자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기적에도 움직이지 않는다고 밝히신다. 죽은 지 여러 해 된 거룩한 사람이 살아나는 일은 그리스도 부활 때 실제로 일어난 가장 큰 기적이다(마태복음 27:52-53). 그래도 그리스도의 판단으로는, 그런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가 기록된 말씀보다 믿음을 더 강하게 일으키지도, 더 단단한 바탕이 되지도 못한다. 하늘의 음성도 마찬가지다.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을 직접 들었지만,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 말한다. 말씀 자체가 더 확실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증거를 내어 주는 방식에서 더 확실하다는 뜻이다. 하늘에서 음성이 정말 들린다 해도 사탄이나 사람이 꾸민 속임일 수 있다. 교황 첼레스티노가 하늘의 음성이라 여긴 것이 후임자의 속임수였다고 전해지는 일도 있다. 결국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음성에 함께 있는 '신적인 것'에 기댈 수밖에 없다. 그 표지가 처음 주어진 말씀에 있었다면 기록되었다고 사라졌을 리 없다. 그러므로 어떤 가르침이 하나님의 진리인지 “교묘히 만든 이야기”인지는 오직 성경 자체가 판가름한다.

1. 부자는 기적을, 그리스도는 말씀을 가리킴
2. 말씀을 거절하는 자는 기적에도 안 움직임
3. 부활 기적도 말씀보다 단단한 바탕 아님
4. 기록된 예언이 하늘 음성보다 '더 확실'
5. 음성은 속임일 수 있다. 결국 '신적인 것'
6. 기록이 말씀의 권위를 없애지 않는다

> **누가복음 16:31**
> 기적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모세와 선지자)이 믿음과 회개의 직접 바탕이라는 그리스도의 판단
>
>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마태복음 27:52-53

성도들이 무덤에서 일어난 일. 기적 중 가장 큰 기적도 말씀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비교의 기준

52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53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베드로후서 1:17-18

변화산에서 "지극히 큰 영광" 가운데 들린 음성. 사도들이 직접 겪은 최고의 기적 (오웬은 1:18-21로 묶어 표기)

17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18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후서 1:19-21

"더 확실한 예언". 그 이유(성령의 감동으로 된 예언)는 앞에서 이미 다루었다고 오웬이 말함

19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20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21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민수기 7:89

하나님이 증거궤 위 속죄소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일. 특정 장소에서 들리는 음성도 그 자체로는 판별 문제가 남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베드로후서 1:16

"그 모험 만든 이야기". 진리의 진이냐 것의 판가름은 성경에 맞춰지는 결론에 사의 (오웬은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더 확실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더 확실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 증거를 우리에게 내어 주는 데서 더 확실하다는 뜻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말씀의 권위를 없애시려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셨겠는가?"

⚖️ 오해와 반론

📖 용어

자증(自證)
성경이 다른 보증인 없이 스스로 하나님에게서 났음을 드러낸다는 뜻.

비인위적 논증(증언 논증)
누군가 증언했다는 사실에 기대는 논증. 옛 논리학에서 '기술로 만들어 내지 않은 증거'라는 뜻으로 쓰던 말.

인위적 논증(추론 논증)
근거를 놓고 따져서 결론을 끌어내는 논증.

영감(데오프뉴스티아)
하나님께서 성경을 숨을 내쉬듯 주셔서 그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 되게 하셨다는 뜻. 디모데후서 3:16의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신적 신앙

신적인 것(토 데이온)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아보게 하는 신적 성질.

확실한 표지(테크메리아)
틀림없이 구별하게 해 주는 증거 표시.

휘포스타시스
믿음이 그 위에 서는 바탕·실체. 히브리서 11:1에도 쓰인 헬라어.

소키누스파
16~17세기에 삼위일체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한 이성주의 집단. 오웬은 그리스도가 자기 능력으로 부활하지 않았다는 그들의 주장을 지나가듯 언급한다.

🔗 다른 책과 닿는 곳

💬 청년의 삶으로

✅ 이 장의 결론

-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확신의 바탕은 성경 밖이 아니라 “성경 안에, 성경 자체로부터” 있다.
- 성경이 자기를 받아 달라고 내세우는 근거는 전통·교회·기적·동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감이다.
- 하나님은 참 말씀을 분별할 의무를 주신 만큼 분별할 표지도 말씀 안에 두셨다. 그래서 거부는 핑계할 수 없는 죄가 된다.
- 죽은 자의 부활도, 하늘의 음성도 기록된 말씀보다 더 단단한 믿음의 바탕이 아니다. 기록되었다고 그 신적 표지가 사라지지 않는다.

🎬 이 장을 쓰는 편

- 성경론 14편 · 기적·전통·이성은 어디까지 증거인가 · 변증의 자리

빛다방 학습 노트 · 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B. B. 워필드 『성경의 영감과 권위』(CLC), 헤르만 바빙크 『개혁파 교의학』(새물결플러스)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1647)와 존 오웬의 논고(1659)는 공유 저작물로 우리 번역입니다.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 기준입니다. youtube.com/@빛다방